

# 마포구공단, 공중위생화장실 관리인 대상 전문교육 실시

✎ 김혜란 기자 | ⌚ 승인 2026.06.09 20:31

관리 실무역량 강화...불법촬영 대응·위생관리 등 현장 중심 교육 실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마포구종합행정타운 환경미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중위생화장실 관리인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시정일보 김혜란 기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경영본부장)은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시설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마포구종합행정타운에 파견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공중위생화장실 관리인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화장실문화협회 표혜령 상임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진행됐으며, 화장실 관리의 4요소, 세제 사용 시 주의사항,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 청소 에티켓, 유지관리자의 건강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실무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악취 제거와 위생관리 등 기본 관리 요소뿐 아니라 불법촬영 의심 기기 발견 시 신고 및 현장 보존 등 대응 절차도 함께 다뤄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세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혼합 사용 금지 등 즉시 적용 가능한 수칙도 교육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전문교육을 지속 추진해 공공시설 관리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기자